

# 高城紀行 ③ 겨울바다와 호수에 비친 그리움, 화진포



##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겨울여행

갈대·소나무 숲 속에서 호수 감상 ... 김일성·이승만 별장 등 한국 현대사 공존

신묘년 한해가 저물어가는 12월. 다사다난했던 올해를 뒤돌아보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바다와 호수가 그림같이 어우러진 화진포로 겨울여행을 떠나보자. 그곳에 가면 대자연의 감동이 나를 치유하고 위로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이다.

화진포는 바다, 호수, 갈대, 소나무, 철새 등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청정자연의 아름다움이 보존되어 있다. 또 김일성 별장, 이승만 별장 등 현대사에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들의 별장과 해양박물관, 금구도 등 볼거리가 풍부하다.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이처럼 아름다운 경관은 보기 드물다는 게 여행전문가들의 평가다.



화진포는 매년 여름이면 전국에서 수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유명한 해변이다. 그러나 화진포의 진정한 맛을 즐기려면 겨울에 찾는 것이 좋다. 특히 설경에 뒤덮인 화진포는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사진 위는 지난 8일 내린 눈으로 하얗게 덮인 화진포 돌레길의 모습. 아래는 화진포 호수.

취재·사진 : 원광연 기자

화진포로 여행을 갈 때 우선 바다를 먼저 들리는 것이 좋다.

차를 타고 7번 국도를 달려 대진중학교 입구에서 화진포로 우회전해 300m를 진행하면 왼편으로 해양박물관과 함께 잘 정돈된 주차장이 보인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차에서 내리면 정면으로 시원하게 가슴을 적셔주는 화진포해변의 바다와 곱디고운 모래백사장이 눈앞에 들어온다.

여름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 발디딤 틈도 없었던 백사장 앞에 서면 확트인 수평선과 차가운 바람이 정신을 맑게 해준다.

모래 위에 앉아 겨울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명상에 잠긴다. 올해 좋지 않았던 기억들, 걱정, 근심, 분노, 슬픔, 아픔, 실패, 증오, 절망 등을 회상하며 부셔지는 파도에 다 던져버리고 맑은 바닷물에 다 씻어 버린다.

자연이 마음의 짐을 내려 주어 어느 새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내년 겨울바다의 추억을 기억하며 다시 주차장 쪽으로 걸어와 배 모양으로 웅장하게 지어진 해양박물관을 향한다.

### 동해안 최대 규모 해양박물관

해양박물관은 동해안 최대 규모로 세계적으로 희귀한 각종 조개류, 갑각류, 산호류, 화석류, 박제 등 1,500여종 4만여 점을 전시한 패류박물관과, 각종 수조에 수중생물 125종 3천여 마리를 각각의 서식 환경과 컨셉에 따라 보여주는 어류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 어류전시관에는 180도 머리 위를 휘감는 수량 3백여 톤의 해저터널을 갖추었고, 2층은 오션비치, 아름다운 동해바다, 무척추동물관과 입체영상관 등으로 꾸며져 있다. 특히 2층 입체영상관에서는 ‘호수가 된 화진포’, ‘바다의 하루’, ‘신비한 바닷속 여행’ 등을 상영해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입장료는 개인기준으로 대인 5천원, 소인 3천원이며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해양박물관을 나와 차를 몰고 다리를 건너 300m정도 직진하면 갈대와 소나무가 어우러져 있고, 항상 잔잔함을 유지하고 있는 화진포호수와 이승만 별장이 나온다.

이승만 별장은 이승만 대통령이 부인과 함께 수시로 찾았던 별장으로 1954년 건립되었다. 1961년부터 방치되던 것을 1997년 7월 육군이 재건축해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했다.

집무실·침실·거실을 재현했으며, 대통령 부부가 사용한 침대·낚시 도구·의복·안경·장갑·여권·편지 등 유가족이 기증한 유품 53점을 전시하고 있다. 별장 뒤에는 친필 휘호·의복·소품·도서 등을 전시해 놓은 이승만대통령화진포기념관이 있다. 입장료는 개인기준으로 대인 2천원, 소인 1천 5백원이다.

이승만 별장을 둘러본 뒤 호수 앞에 있는 작은 공원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것이 좋다.

호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소나무와 갈대, 철새 등을 바라보고 호수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면 콘크리트 건물과 아파트, 수많은 차량과 시끄러운 경적, 복잡한 간판과 사람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뿔어져 나오는 싱그러운 공